

드넓은 논밭 지나 명랑대첩 전적지 울돌목 만나다

장갑수와 함께 걷는 길

서해랑길 5코스



논과 밭이 넓게 펼쳐지고, 농경지 가운데에는 구릉지가 곳곳에 자리했다.

봄기운이 완연하다. 봄을 맞으러 남녘 땅 해남으로 향한다. 봄은 남쪽에서 올라오고, 겨울은 북쪽에서 내려온다.

서해랑길 5코스가 시작되는 해남군 문내면 원문버스정류장에 도착하니 마을 뒤로 옥매산이 바라보인다. 옥매산을 등 뒤에 두고 서해랑길을 걷기 시작한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에다 기운까지 올라 걷기에 안성맞춤이다.

주변은 논과 밭이 넓게 펼쳐지고, 농경지 가운데에는 구릉지가 곳곳에 자리했다. 들판은 무채색을 띠고 있지만 땅 위에서는 광대나물이나 봄까지꽃이 봄의 전령처럼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밭에서는 이미 봄 농사가 시작되었다. 작물을 파종하기 위해 밭갈이를 해 놓았고, 비닐멀칭까지 마친 밭도 많다.

오늘 걷는 서해랑길은 마을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이용하는 농로를 따라 이어진다. 농로를 따라 걸으며 농민의 마음으로 돌아간다. 농사는 하늘과 사람의 공조 속에서 이뤄진다. 땅에서 작물이 자라려면 비와 햇빛이 있어야하고,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줘야한다. 논밭에서 자라는 벼한포기, 고추 하나에도 농부의 정성과 우주의 기운이 스며있다.

서쪽으로 갈수록 논보다는 밭이 많아진다. 날따라 밭에서는 지난 가을부터 겨울까지 배추가 자랐다. 해남에서 생산된 배추는 지난해 11월, 12월 김장용으로 출하되고, 나머지는 겨우내 월동배추로 판매됐다. 해남은 우리나라 최대 배추생산지다. 배추수확을 마친 밭에는 봄철 다른 작물을 심으려고 비닐멀칭을 해놓았다.

밭 가운데에 송정마을이 등지를 틀었다. 논밭과 마을은 농촌공동체를 이룬다. 구릉지와 밭으로 둘러싸인 원동리마을 역시 봄기운이 완연하다. 보리를 파종한 밭에는 푸른 보리가 겨울을 견디고 나서 성장을 시작했다. 논길을 지나 밭길을 따라 걷는데 거름냄새가 진하게 풍긴다.

해남의 밭은 대부분 황토로 이뤄져있다. 황토는 산화철 함량이 높아 붉은색을 띠며,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에서 자란 해남산 고구마나 배추는 유난히 맛있다.

장포마을로 가는 구릉지 밭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 들판 너머로 해남과 진도 사이에 형성된 바다가 바라보인다. 서해랑길 4코스를 걸을 때 옥매산 서쪽으로 넓게 펼쳐졌던 들판도 옥매산과 함께 한눈에 바라보인다. 해남군 문내면은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도 날따라 들판이 형성돼 있는 풍요로운 땅이다.

들길을 걷다보면 농경지에 의존해 살아가는 농촌마을을 만나고 한다. 장포마을은 군집해있는 일반적인 농촌마을과는 달리 가옥들이 길가로 들성들성 자리했다. 지대가 약간 높은 구릉지에는 밭이, 지대가



명랑해협 또는 울돌목은 전남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와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사이 해협이다. 길이가 1.5km이며, 폭이 가장 좁은 곳은 300m 정도다.



높이 18m, 폭 8m에 이르는 이색대첩비.

낮은 평지에는 논이 형성돼있다. 논밭과 가옥이 함께 어울린 농촌풍경이 더없이 정겹고 소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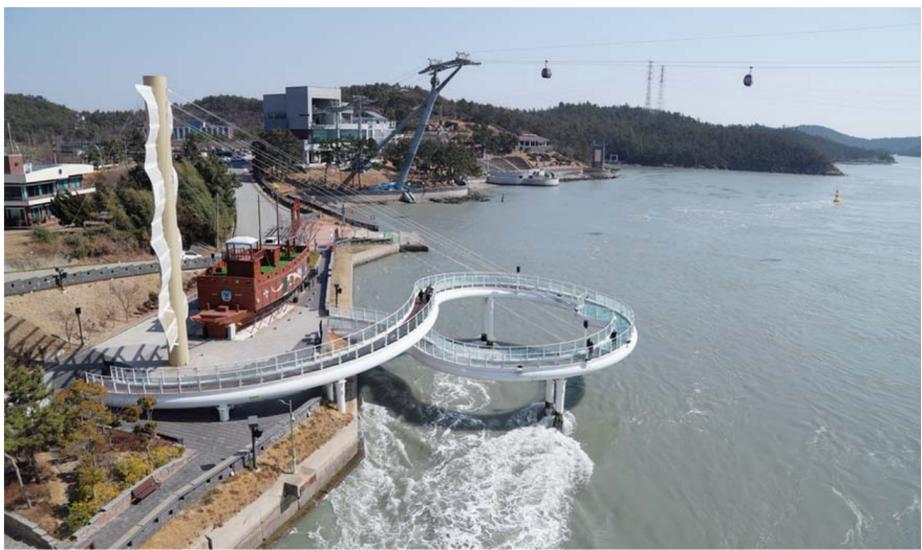
장포마을을 뒤로 하고 학동마을로 향한다.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 밭농사와 논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이다. 논에서는 벼농사를 짓고, 밭에서는 고추 참깨, 고구마 배추 등을 재배한다. 맨 땅을 드러낸 논밭이 황량하면서도 포근하게 느껴지는 것은 땅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때문일 것이다.

밭 가운데로 난 농로를 따라 둔덕을 넘으니 학동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학동마을은 구릉지에 감싸여 학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아늑하고 포근하다.

학동마을에는 파란색 지붕이 유난히 많아 생동감 넘친다. 낮은 고개를 넘으니 오늘 처음으로 바다가 가까워져 다가온다. 해변에 자리한 삼정마을 뒤로 푸른 바다가 펼쳐진다.

우수영국민관광지를 둘러싸고 있는 낮은 산으로 들어선다. 임도주변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남쪽 해안이라 후박나무 같은 난대성식물이 많고 소나무도 함께 숲을 이뤘다. 우수영국민관광지로 넘어가는 임도는 휴길인데다가 숲속을 걷게 되니 마음까지 포근해진다.

임도 삼거리에 '명랑대첩기념공원산책로' 표지판이 서있다. 명랑대첩기념공원산책로는 우수영국민관광지로 지정된 명랑대첩기념공원 옆 임도를 따라 1.1km를 걷는 길로 전망대에 오르면 울돌목, 명랑대첩



명랑해협은 조수간만 때 바다가 소리를 내며 거세게 흐르는 좁은 목이었으므로, 좁은 목과 조류를 이용해 우리 수군은 13척의 배로 133척에 이르는 적군을 물리쳤다. 후세들은 이 전투를 '명랑대첩'이라 불렀다.

기념공원, 진도대교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명랑대첩기념공원산책로를 따라 해변쪽으로 내려가니 명랑해협과 진도의 여러 산들이 아기자기하게 다가온다.

진도로 통하는 진도대교는 손에 잡힐 듯 가깝다. 명랑대첩기념공원으로 가는 길 곳곳에는 여러 조형물들이 설치돼 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높이 18m, 폭 8m에 이르는 이색대첩비다. 이색대첩비에는 4면에 이순신 장군 형상을 비롯해 관옥선, 명랑대첩비 비문, '필사즉생 필생즉사' 문구가 새겨져 있다.

2008년 세워진 '명랑의 고뇌하는 이순신상'은 밀물 때 발목까지 차오르는 울돌목 바위위에 세워졌다. 울돌목은 정유재란 당시 명랑대첩을 거둔 곳이다. 1597년 이룩한 명랑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이곳을 1986년 우수영국민관광지로 지정하고, 1991년 명랑대첩기념공원으로 조성했다.

정유재란이 있기 1년 전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은 모함을 받아 투옥됐다. 이순신을 대신해 통제가 된 원균은 일본군에 대항했으나 대패하며 전사했고, 수군은 거의 전멸상태에 빠졌다. 사태가 긴급해지자 선조는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해 왜군을 막도록 했는데, 이때 남은 것이라고는 군사 120명과 병선 12척뿐이었다. 이후에 1척이 보태져 왜군과는 13척을 가지고 전투를 벌였다.

명랑해협은 조수간만 때 바다가 소리를 내며 거세게 흐르는 좁은 목이었으므로, 좁은 목과 조류를 이용해, 우리 수군은 13척의 배로 133척에 이르는 적군을 물리쳤다. 후세들은 이 전투를 '명랑대첩'이라 불렀다. 명랑(鳴梁)은 물살이 빠르고 소리가 요란해 바닷



학동마을은 구릉지에 감싸여 학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아늑하고 포근하다.

목이 우는 것 같다고 해 불려진 '울돌목'의 한자말이다. 명랑해협 또는 울돌목은 전남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와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사이 해협이다. 길이가 1.5km이며, 폭이 가장 좁은 곳은 300m 정도다.

서해랑길은 우리를 진도대교로 안내한다. 1984년 완공된 진도대교는 길이 484m, 너비 11.7m, 왕복 2차로에 이르는 한국 최초의 사장교이다. 명랑해협의 조류가 거세 양쪽 해안에 교대와 교각 등 하부 구조물을 설치한 한 후 콘크리트 교각 위에 높이 60m의 주탑을 세우고 케이블로 교량상판을 지지했다.

진도대교를 걷고 있으니 해남 쪽 우수영국민관광지와 진도 쪽 녹진관광지가 한 눈에 보인다. 진도대교 아래로 명랑해협의 조류가 물소리를 내며 거세게 흘러간다. 명랑대전 당시 우리 수군의 함성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진도대교를 건너 진도 땅에 도착하면서 서해랑길 5코스 걷기가 마무리된다. <장갑수·여행작가>



울돌목에 설치된 진도대교는 길이 484m, 너비 11.7m, 왕복 2차로에 이르는 한국 최초의 사장교다. 1980년 착공해 1984년 완공됐다.

※여행쪽지

▲서해랑길 5코스
에서는 드넓은 논밭을 바라보며 농로를 따라 걸다가 소박한 농촌마을을 만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명랑대첩 전적지 울돌목에서 호국의 숨결을 느껴볼 수 있다.

※코스 : 원문버스정류장→송정마을회관→장포마을회관→학동마을회관→우수영국민관광지→진도대교→녹진관광지

※거리, 소요시간 : 12km, 3시간 30분 소요

※출발지 내비게이션 주소 : 원문버스정류장(해남군 문내면 명랑로 807)